

No.89

Japan Weekly Digest

2011. 6. 6. ~ 6. 10.

□ 금주의 이슈

- IMF, 일본성장을 $\Delta 0.7\%$ 하향 조정
- 일본 차기총리로 노다 재무상 유력
- 도요타 CEO, 한국시장 파악을 위해 방한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- 경산대신, 정지중인 원전 7월 재가동 표명
- 기업간 서플라이체인 강화대책 검토
- EPA체결국과 원산지증명 전산화

□ 일본기업전략

- 일본기업, 신흥국개척을 위해 설비투자 확대
- 히타치, 인재 글로벌화를 위해 그룹 인적정보 공유
- CJ, 삿포로와 제휴하여 막걸리 수출

□ 보고서 리뷰

- 통상백서 2011



협회 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□ 금주의 이슈

○ IMF, 올해 일본성장률 $\Delta 0.7\%$ 하향 조정

- 국제통화기금(IMF)은 8일 일본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.7%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
- IMF는 동일본 대지진과 쓰나미 여파가 계속되면서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발표했던 1.4%에서 마이너스 0.7%로 하향조정했다고 발표
- 그러나 내년전망은 당초 발표했던 2.1%에서 2.9%로 상향하면서 "일본 경제는 지진피해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급압박이 완화되고 피해복구 지출에 속도가 붙으면서 여름부터 회복세가 시작될 것"이라고 전망
 - * 일본의 4월 경상흑자도 전년대비 70% 급감
- 또 막대한 복구비 지출을 고려하면, 일본정부가 내년부터 소비세를 7~8%로 인상하고 15%까지 지속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

○ 일본 차기총리로 노다 재무상 유력

- 간 총리 후임으로 노다 재무상을 중심으로 대표선임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일본 언론에서 보도
- 일본 언론에 의하면 민주당 오카다 간사장, 센고쿠 대표대행, 아즈미 국회대책위원장, 에다노 관방장관 등이 차기총리로 노다 재무상을 밀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함
- 노다 재무상을 후임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Δ 오자와그룹도 인정하고 있는 인물 인데다가 Δ 현안인 2차 추경예산안 통과 등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함
 - * 민주당 간부들은 7월에 차기총리 선거를 실시하기로 합의

○ 도요타 CEO, 한국시장 파악을 위해 처음으로 방한

- 도요타자동차 아키오사장이 4일, 한국시장 파악과 직원 격려차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
- 방한목적은 한국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영업현장을 파악하고 지진 이후 도요타 복구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함
- 아키오사장은 "지진 이후, 500사에서 주요부품 공급문제가 발생했으나, 4월에는 150사, 현재는 30사까지 줄어들었다. 6월부터는 90%까지 회복될 것"이라고 언급
- 자동차업계에서는 도요타CEO가 한국을 방문한 것은 한국자동차에 대한 위기감 때문이라고 분석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○ 경산대신, 정지중인 원전 7월 재가동 표명

- 가이에다 경산대신은 7일, 정지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 문제에 대해 “여름철 전력피크가 7월이라고 알고 있다” 고 언급하면서 7월까지의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
- 경산대신은 “원전의 입장, 자치단체의 견해도 있기 때문에 향후 조건이 조정이 되면 관련부처와 기관 등을 방문하여 설명하고 싶다” 라고 언급
- 경산대신은 5월에 “지장이 없을 것이다” 면서 원전 재가동을 추진하였으나, 후쿠이현 등 자치단체의 심한 반대로 재가동시키지 못했음

○ 화학 기업간 서플라이체인 강화대책 검토

- 경제산업성이 화학 메이커에 의한 서플라이체인 강화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일간공업신문이 9일 보도
- 특정기업이 피해를 당해 제품을 공급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△다른 기업 제품으로 융통하거나, △경쟁사가 피해기업을 대신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구축
- 22일까지 주요기업으로부터 회의개최에 관한 합의를 얻어 내고, 어느 품목에서 서플라이체인 강화가 가능한지에 대해 조사할 방침
- 한편, 대체생산을 강화시킬 경우 업계 내에 유사설비 중복으로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거나 연구개발 의욕을 떨어트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

○ 일본정부, EPA체결국과 원산지증명 전산화

- 경제산업성은 수출기업이 경제연계협정(EPA)체결로 상대국으로부터 관세 우대조치를 받을 때 필요한 원산지증명을 전산화할 방침이라고 발표
- 수속대행기관인 일본상공회의소를 통해 경산성이 관리하는 온라인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면 상대국 세관당국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
- 처음으로 말레이시아 수출에 적용시키기 위해 同國정부와 조정에 들어갔으며, 시스템정비를 거쳐 올 연말까지는 전산화를 실시할 예정
- 경산성은 원산지증명 전산화와는 별도로 EPA체결국가에 대해 기업 스스로 증명서를 발행하는 자기증명활동도 추진하고 있음

□ 일본기업전략

○ 일본기업, 신흥국개척을 위해 설비투자 확대

- 닛케이신문이 발표한 '2011년도 설비투자조사'에 의하면 올해 일본기업의 설비투자는 작년대비 15.5%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스마트폰, 디지털기기용 첨단소재의 증산과 신흥국의 수요증가 요인으로 설비투자가 늘어났음
- * 10년: 14조 9918억엔 ⇨ 11년: 17조 3222억엔(15.5%)
-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전년대비 22.5% 증가한 7조 6068억엔, 비제조업은 10.6% 증가한 9조 7154억엔. 특히, 부품소재분야는 32.1% 증가한 2조 6790억엔으로 제조업의 투자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남.

○ 히타치, 인재 글로벌화를 위해 그룹 인적정보 공유

- 히타치그룹이 글로벌화의 일환으로 913개 계열사 36만명의 인적정보를 일원화하는 파격적인 인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닛케이신문이 8일 보도
- 히타치는 인사개혁을 통해 인프라 분야를 독점해온 GE와 지멘스처럼 신흥국 인프라 수주 시 현지 인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이 목적
- 히타치는 7월부터 도쿄 본사에 '**글로벌 인재 본부**'를 설치하여 전세계 36만명의 직원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해외사업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
- * 특히 5~6만명의 과장급 이상 관리직은 직무 권한이나 업무 범위에 따라 등급을 통일 시켜 동일한 처우

○ CJ, 삿포로와 제휴하여 일본에 막걸리 수출

- CJ제일제당은 8일 한국의 지역업체가 제조한 막걸리를 삿포로 영업망을 활용, 일본에 수출한다고 발표
- 일본의 여성고객층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막걸리 수출을 위해 삿포로맥주의 유통망을 활용함으로써 일본 사업을 확대시키는 것이 목적
- CJ는 10년 180억 이었던 일본의 막걸리시장을 내년까지 400억 규모로 끌어올릴 계획으로 11년까지 약 3000개 영업망을 확보할 예정

□ 보고서 리뷰

통상백서 2011 (개요)

- ⇒ 경제산업성은 부품소재의 생산현장 자동화기술 수출이 아시아지역경제를 발전시키고, 일본경제성장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내용의 ‘통상백서2011’을 발표
- ⇒ 동북 대지진으로 인한 기업피해가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, 「동일본 대지진 피해 극복과 생산, 무역, 투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」을 강조

□ 지진발생 이후 일본기업의 해외진출로 인한 공동화 방지 강조

- 경제산업성은 6월7일, 통상백서 주요내용을 발표
 -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태평양경제협력협정(TPP) 참여 등 대외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제안하면서 특히,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
 - 산업공동화 현상에 대해 지적하고 새로운 산업진흥정책, 신에너지정책 등도 필요하다고 강조

□ 지진 영향에 따른 일본 통상정책 과제 제시

- 법인세 인하, 엔고의 장기화, 신흥국 시장의 수요변화 등이 일본경제의 위험요소로 등장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응이 과제
 - 특히, 지진 발생 이후 전력 문제, 서플라이체인 붕괴, 일본음식과 제품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의 문제가 확대되고 있어 시급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
 - 지진 위험의 분산이나 주요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도 강조
 - ⇒ **일본기업의 해외생산 이전 추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**

□ 자동차 등 서플라이체인과 통상네트워크 분석

- 동북지방 부품공급망이 단절되면서 세계자동차 생산체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지적
 - 동북지역에서 생산된 부품의 70%가 간토지방을 경유, 수출되는 메커니즘이 서플라이체인을 단절시킨 원인이라고 분석
 - 일본정부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체제를 재검토하고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전략 강화가 시급하다고 분석

【금주의 일본 주요보고서】

- (1) 『부품소재기업이 직면한 경영과제』 미즈호종합연구소, 6월7일
*출처: <http://www.mizuho-ri.co.jp/consulting/management/pdf/news201106.pdf>
- (2) 『물 비즈니스의 PPP촉진』 경제산업성, 6월7일
*출처: <http://www.meti.go.jp/report/downloadfiles/g11606a02j.pdf>
- (3) 『동북대지진이 일본경제에 미치는 영향』 참의원, 6월8일
*출처: http://www.sangiin.go.jp/japanese/annai/chousa/keizai_prism/backnumber/h23pdf/20119102.pdf
- (4) 『디지털콘텐츠 시장환경 변화에 관한 조사』 JKA, 6월9일
*출처: http://www.dcaj.org/report/2010/data/dc_10_01.pdf
- (5) 『지진이 국내고용과 산업공동화에 미치는 영향』 경제산업성, 6월9일
*출처: http://www.meti.go.jp/committee/summary/0003410/013_s01_00.pdf
- (6) 『새로운 동북, 새로운 일본탄생을 위한 5가지 시점』 경제동우회, 6월9일
*출처: http://www.doyukai.or.jp/policyproposals/articles/2011/pdf/110608a_02.pdf

【금주의 일정】

일 자	주 요 일 정
6월 6일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IAEA에 원자력대책 보고서 발표(경산성) ○ 제9회 신성장전략실천회의 개최(경산성) *에너지환경전략 집중 논의 ○ 5월 자동차판매실적 발표(자동차판매연맹)
6월 7일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정부, 원전사고조사·검증위원회 개최 ○ 4월 경기동행지수 발표(내각부) ○ 화학비전연구회 개최(경산성)
6월 8일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산업구조심의회(통상정책) 개최(경산성) ○ 4월 국제수지 발표(재무성) ○ 4월 특정서비스산업동태통계 발표(경산성)
6월 9일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1~3월 GDP수정치 발표(내각부) ○ 5월 소비동행조사 발표(내각부)
6월10일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5월 기업물가지수 발표(일본은행) ○ 4월 제3차 산업활동지수 발표(경산성)